

오피니언

월/요/광/장

하동만



1929년 세계 대공황 이래 최대의 경제 위기로 일컬어지는 작금의 국제금융 혼란 상황에 직면하여, 1997~1998년 경험했던 외환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우리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우리는 경제가 국제금융위기 초입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환율의 급등과 주가의 급속한 하락이다. 이

와 같은 금융·외환 시장의 불안이 실질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기업의 도산, 실업의 증가 등 전면적인 경기침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세계 금융공황 능동적 대처해야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자산이 있다. 2천400억달러 수준의 외환 보유액과 그동안 다져진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대외적 신뢰를 확보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자기는 가장 큰 덕목이다. 최근의 환율 불안은 우리의 외환 보유액 실체에 대한 오해, 미래 외환 수급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장단기 외환 수급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제시하고 기업과 금융기관들

다. 경제전반이 위축된다고 하여 자금 확보, 특히 달러화 등 안전자산 확보에만 열중한다면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넷째,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해진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기업들이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지를 팔아 지방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한기수



요즘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 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실물 경제도 좋지 못하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으니 물건값을 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물건이 팔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가압류·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듯하다.

관으로부터의 신규 담보대출, 신용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채무자가 종래 금융기관에 지고 있던 채무의 기한이 일시에 도래하게 되고, 종국적으로 금융기관은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한 실행권을 가질 수 있다.

가압류, 가처분도 신중해야

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필자는 종전 출자증권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는 이유를 소명

보와 달리 가압류 순서에 따른 우선 순위가 없다는 점이다. 즉, 여러 명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게 되면 가압류의 시간순서에 관계없이

이해 대해 채권자는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을 가압류했다.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지 못해 새로운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종국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위 출자증권 가압류를 이미 취했다는 것이다.

각자의 채권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되므로, 채권자(특히 금융기관들에 비해 청구금액이 적은 수백에 없는 개인 채권자)는 애초의 기대와 달리 자신의 채권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소액만을 변제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의 경제 사정, 사업 여건 등이 악화돼 결과적으로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비단 위 출자증권 가압류의 문제만은 아니다.

물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채무자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가압류 등 보존처분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선량한 채권자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게 된다. 이 같은 부동산 가압류 또는 채권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이해하고 조 금씩 양보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바람직한 분쟁 해결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광주지방법원 판사>

자동차 딜러들의 판촉용 거짓 정보 조심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다보니 SUV 자동차가 필요했다. 자동차 매장에 둘러 앉아 물어본 뒤 명함을 주고 왔다. 그 뒤로 SUV 차량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내왔다.

하지만 며칠 전 다른 영업사원들이 알려준 내용은 이는 판촉을 위한 거짓 정보라는 것이었다. SUV차량 등록세가 내년에 차값의 4.3%에서 5%로 약간 인상되기는 하지만 공제 매입금액은 안온한다는 것이다.

SUV차는 배기량이 보통 3천cc급이어서 등록세와 공제 매입금액이 한꺼번에 인상되면, 내년에는 25만원에서 최고 165만원까지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일부 영업사원들에 의해 허위로 퍼뜨려지는 소문만 믿고 무리하게 차량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 ▲오선진·광주시 동구 서석동

기고

권영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일명 AA제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는 기업에서 현존하는 고용상 차별을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감소해가는 노동인력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고용을 확대하고자 정부에서 기업의 고용평등인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제도로, 지난 2006년 3월에 도입된 이 제도는 당시 1천명 이상 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에서부터 시작돼 올해 3월부터는 500명 이상 기업까지 확대됐다.

AA제도의 주요 절차는 4단계로 구분되고 모든 단계가 대상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 대상기업은 1단계로 매년 5월31일까지 '남녀근로자 현황'을, 2단계로 동종 산업 여성고용 수준의 60%가 미달인 기업의 경우 그해 10월15일까지 '시행계획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여성은 기업의 힘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혹자는 정부가 기업이 자율경쟁을 하도록 지원은 해주지 않고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기업경쟁을 규제한다고 주장했다.

해 32.01%에서 1.56% 상승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적극적 조치'에 소극적이라는 것이 풀리지 않는 숙제다. 기업에서도 나름대로 할 말이 많다.

이런 논란이 야기되는 것은 적극적 조치라는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못 알려진 데 있다. 이 제도는 동종업종의 다른 기업에 비해 여성을 현저하게 고용하였거나 여성 관리자 비율이 매우 낮은 기업에 대하여 '간접차별'의 징후가 있다고 보고 모든 인사관리 단계를 점검해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

기업에서도 나뉘며 할 말이 많다. 업종별 세부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률적인 고용률 적용방식이나 수십 년간 지속돼온 인사관행을 단기간 내 개선토록 매년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로 촉구하는 방식 등이 기업경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최근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남성과 별반 차이가 없고, 행정·외무·사법고시 등 국가고시의 여성 합격자 비율도 급증했다. 그럼에도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의 격차는 여전히 빈번이 있는 것을 보면 여성의 능력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에서의 여성인력 활용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재의 어려움은 미래의 여성고용 향상을 위한 초석이 돼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이라는 큰 이유로서 되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기업 내 보이지 않는 벽을 없애면 양질의 인재들이 기업의 힘이 되고 경쟁력이 될 것이다.

시행 15일까지 각 기업들이 제출할 시행계획서와 이행실적보고서에는 관행을 깨고 새로운 고용관리에 대한 개선 의지가 담겨져 있기를 기대한다.

지하수 오염 주범 농촌 화장실, 친환경 시설로 개조

농촌 화장실은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을 땅 속에 묻고 이곳에 오물을 저장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구조물은 삭고 낡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분뇨는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모든 15일까지 각 기업들이 제출할 시행계획서와 이행실적보고서에는 관행을 깨고 새로운 고용관리에 대한 개선 의지가 담겨져 있기를 기대한다. <광주지방노동청장>

얼마 전 보성의 한 농촌으로 가을걷이 지원봉사를 갔다. 그곳 농가를 보니 이런 형태의 화장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보성 뿐만 아니라 전남지역 대부분의 농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물이 지하수로 흘러들어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이승민·순천시 교량동

그런데 최근 경남 밀양시가 농촌지역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농업인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친환경 화장실은 분뇨를 호기성 미생물을 사용하여 발효시켜 퇴비화하는 방식이고, 재래식 화장실의 악취와 미관상 단점을 보완해 준다고 한다.

환경 오염이 없고, 위생적이며, 깨끗하고, 유지 관리가 쉬운 이런 시설을 전남도에서도 지역 농촌에 지원했으면 한다. <광주지방노동청장>

시설

시행 100일 노인요양보험 허점 투성이라니

시행 100일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한다. 수혜자가 너무 적고 요양시설간 과당경쟁, 관리감독 체계 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제도가 초창기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허점 투성이라니 안타깝다.

사행 100일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한다. 수혜자가 너무 적고 요양시설간 과당경쟁, 관리감독 체계 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제도가 초창기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허점 투성이라니 안타깝다.

문제는 제도 시행에 따른 한계다. 우선 수혜자가 광주 5.5%, 전남 4.2%에 불과하다. 일부 저소득층 노인까지 '등 돌 외' 관정을 받아 요양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제도 시행에 따른 한계다. 우선 수혜자가 광주 5.5%, 전남 4.2%에 불과하다. 일부 저소득층 노인까지 '등 돌 외' 관정을 받아 요양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화순, 보성, 신안 등 예전 1~2%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금융시장 '혼란' 中企·서민대책 서둘러야

국내 금융시장이 혼란스럽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일부 대기업들이 쏟아놓은 달러를 풀기 시작하면서 환율 상승폭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외화 유동성 위기와 증시 하락 등이 근본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시장이 혼란스럽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일부 대기업들이 쏟아놓은 달러를 풀기 시작하면서 환율 상승폭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외화 유동성 위기와 증시 하락 등이 근본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위기는 실물경제로 파급되고 있다. 기업은 은행권이 돈을 끌어오기 어렵다. 주책담보대출 금리가 10%선을 돌파하면서 내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서민들은 급증한 금융비용 부담에 신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불안심이 사회 전체로 파급될 수밖에 없다. 경기가 침체된 마당에 더 악화되면 불안한 금융시장이 다시 영향을 미쳐 제2의 외환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중소기업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중소기업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無等鼓

1933년 3월 4일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미국 32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대공황을 맞은 미국은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였다.

1933년 3월 4일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미국 32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대공황을 맞은 미국은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였다.

노변한담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루스벨트의 취임식 명언이다.

노변한담은 취임 직후인 3월 12일부터 시작했다. 그는 소아마비의 좌절

대장정에 돌입했다. 바로 '뉴딜'(New Deal)로 불리는 정책의 시행이다. 그러나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설득이 급선무였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대국민 라디오 연설인 '노변한담'(Fireside Chat).

노변한담은 취임 직후인 3월 12일부터 시작했다. 그는 소아마비의 좌절을 딛고 뉴욕주지사에게 당선된 이후에도 라디오를 통해 주민들과의 노변한담을 가져왔다.

Table with newspaper info and subscription rates.